



E-IAVE

Jul-Aug 2008



이번 호에 대해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회원들께서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도 변함없이 최신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달부터 7-8 월호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8-9 월호, 그리고 계속해서 소식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종전과 다름없이 발간 부수는 줄어들지 않고 연간 12 호가 발행되므로 회원 여러분이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은 덜 지루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세계 도처의 IAVE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저희에게 기사와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nn Allen

BULLETIN: 말레이시아에 억류당한 IAVE 세계 회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위의 말이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7 월 중순경 저희가 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이강현 박사의 Hotmail 주소였고, 내용에는 그가 신분증과 귀중품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려 호텔 투숙비와 집으로 돌아갈 여비로 3,400 달러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Western Union 을 통해 그가 머물고 있는 호텔 매니저에게 송금을 부탁했고, 필요 할 경우 증명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사이버상의 신종 사기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계속 써오던 그의 진짜 이메일 주소였고, 처음 글을 읽었을 때에는 마치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청소년들이여, HIV/AIDS, 가난과 무지와 싸우자”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열쇠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구글에 옮겨 검색해보면 바로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사무실에 있는 진짜 이강현 박사로부터 본인은 안전하게 한국에 잘 있다고 알리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핫메일 계정은 이미 예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 이번 호에 대해
- **Bulletin:** 말레이시아에 억류된 IAVE 세계 회장 빙자 온라인 사기

IAVE 로부터의 소식

- **IYV+10...** 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세계 경제 지도에 자원 봉사가 포함 되도록 도와주세요.
- 세계회장으로부터
- **IAVE** 의 새 직원을 환영합니다

회원 소식

- **Liz Burns** 전회장 근황
- 자원봉사 자서전: **Meg Villanueva**
- 사랑으로 쓰촨을 도운 홍콩의 자원봉사자들
- **GCVC** 로부터의 소식: 디즈니명예자원봉사자들
- **You Tube** 동영상에 뜬 IAVE 회원들
- 싱가포르 **NVPC 'Giving Place'** 개소식 축하

각국의 자원봉사 소식

- 이달의 일정
- 오늘의 정보

IAVE 뉴스 NEWS FROM IAVE

IYV+10...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



2011년(IYV+10)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2001)의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제 29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기사는 IYV 10주년의 지속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IAVE 이사회의 아태지역대표인 Kylee Bates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세계경제지도에 자원봉사를 넣어주세요: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4월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IAVE 회원들은 Lester Salamon 교수(시민사회 연구소장, 존스홉킨스 정책연구소장)의 자원봉사 가치측정 연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발표된 자원봉사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는 자원봉사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교(JHU)와 국제노동기구(ILO)는 나라 안에서부터 세계적인 규모까지 정규 노동 인력 조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자원봉사단(UNV)의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노동통계 국제 컨퍼런스에서 방법을 제안하고, 중요 단계로부터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존스홉킨스대학과 국제노동기구 팀이 작업 가능한 접근을 하겠다고 자신하지만, 실은 전 세계에 있는 국가 통계청이 자원봉사를 세계경제지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AVE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 지역적인 자원봉사센터와 주요 자원봉사단체들의 역할은 그들의 각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이슈와도 깊은 관계가 있어 간과할 수 없습니다.

IAVE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국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자원봉사는 목표를 현실로 나타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각 국가 통계청 책임자에게 또는 국가기관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고, 국제노동통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사안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원이 수월해지도록 돕기 위해 여기 편지의 초안을 덧붙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편의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시고, 통계청에 편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보내신 편지들의 복사본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지원 상태를 확인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인 Kylee Bates의 이메일로 보내질 수도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녀의 이메일 주소는 kmb_71@hotmail.com 입니다.

- 여러분 국가의 통계기관의 주요 고위 공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실 경우, 이를 IAVE 에게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정보를 존스홉킨스대학교와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공유하여 프로젝트 지원을 늘리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과 관계된 세부내용은 Kylee Bates 에게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참조).

다른 많은 국가에도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11월 컨퍼런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인도에의 지원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AVE 회원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 커나가서 위 국가들의 통계기관의 정보가 국가 자원봉사기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존스홉킨스대의 홈페이지(<http://www.jhu.edu/~ccs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식이 생기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 초안

To: 노동통계 책임자 귀하
 [국가 통계기관명 기입]
 [주소 기입]

편지 초안글 - IAVE 회원을 위한 참고 예문

담당자님께:

국제노동기구와 존스홉킨스대학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있는 자원봉사 노동력 측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고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오는 제 18 회 국제 노동통계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며, 회의는 11 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의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로 인해 그 밖에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원봉사 인력은 노동력조사에서 간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채택된 UN 의 국가회계시스템과 관련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안내서에는 각 국가는 비영리조직의 자원봉사 노동력의 가치를 포함할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0 개 이상의 국가가 벌써 이 내용을 받아들였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ILO 가 권한 자원봉사 노동력 측정의 기준은 지속적인 노동력 조사를 함으로써 자원봉사로 노동력에 대한 정보를 점차적으로 보강해나가며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절차와 구조를 갖추게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ILO 가 지정한 Technical Experts Group 이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unteer Effort (IAVE)의 명예로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곧 다가오는 제네바 국제 컨퍼런스에서 귀하께서 이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서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삼가 _____ 올림

세계회장으로부터 온 소식

[그는 말레이시아에 있지는 않으며, 현재 IAVE 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그의 활동에 대한 공식 보고서이다.]

5 월 20 일, 한국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제가 IAVE 협회장으로의 취임한 것을 기념하여 공식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여야의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전직 장관, 삼성 등 기업의 CEO, CSR 사회책임경영팀장, 그리고 NGO 단체장, 자원봉사를 비롯해 250 명이 넘는 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유명 오페라 가수인 우주호씨 외 10 분이 자원봉사로 작은 축하공연을 해주셔서 그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회장직을 지원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약 15,000 달러의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 기사 참고)

몇몇 후원자들이 강력하게 제안한대로, IAVE Korea 를 설립하고 정부의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IAVE 청소년 사무소(IYOC)의 공식 연설 세러머니에 참석하기 위해 6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바르셀로나에 다녀왔습니다. IAVE 의 비전과 미션, 전략, 그리고 청소년 사무소의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IYOC 지도위원회의 회의는 6 월 12 일에 열렸습니다. 회의주제는 카탈로니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한 보고서와 IYOC 액션플랜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IAVE 의 새로운 직원을 환영합니다!

이유빈씨를 이강현 회장의 새로운 보좌관으로 맞이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고야에서 열린 2007 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에 참여했었고, Y-IAVE 소식지의 한국어 통역자로 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이유빈씨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원봉사는 저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분야예요. 저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지만 IAVE 와 자원봉사의 한 단계 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유빈씨는 예전에 한국거주 외국인을 위한 HIV/에이즈 예방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기획책임자로 활동했고, CARAM 아시아 네트워크에서 이주노동자 건강 증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 글로벌 빈곤퇴치 NGO 네트워크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2007 년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 내 글로벌 파이어니어 프로그램에서 태국 내 전반적인 에이즈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방 가능한 반응을 실제적으로 보고배우기 위한 ‘방콕 스터디 투어’를 기획하여 우승한 바 있습니다.

이유빈씨의 이메일 주소는 shinebin@gmail.com 입니다.

IAVE 회원으로부터의 소식

NEWS FROM IAVE MEMBERS

리즈 번즈 전 회장의 근황

[IAVE 이후에도 삶은 지속됩니다!! 최근 Kathi Dennis와의 이메일 교환 중에, Liz Burns 전 회장이 파나마 세계대회 이후의 근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새로운 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또 매우 낯선 곳에 적응하는 중이에요(아니면 그 반대로 적응을 못하는 건지도 모르죠!). 제 작은 아들이 15년간 같이 일하던 사람과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이제는 제 딸이 10년간 같이 일했던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10월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또 한 번 즐겁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물론, 4월에 비하면 약간 덜 떠들썩하게 보내겠지만요).

저는 아직 스코틀랜드 정부위원회 소속으로 내년 5월까지의 일정이 짝 차 있지만, 우리는 그 전까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환경에서의 자원봉사를 비롯한 많은 보고를 마무리해야 하고, 컨퍼런스의 클로징도 조정해야 합니다. 진과 다름없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많죠. 지난 6월에는 연례행사인 스터디투어를 다녀왔고,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최북단인 Caithness 에 갑니다. 북해와 북대서양이 만나는 곳인 Pentland Firth의 절벽 위에 14세기에 세워진 환상적인 성에서 Caithness의 백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진행되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재건 프로젝트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영국 NGO의 은퇴한 중역들이 모인 한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발전한 적이 전혀 없지만, 여기서도 그와 관련 있는 일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런던으로 여행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UN DPI 간부위원회에 재당선되어 가끔씩 뉴욕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구석 구석에는 “IAVE와 함께 한 여행”의 소중한 추억거리들이 갖들여 있고, 이사회에서 세계 준 예쁜 스크랩북은 현관입구의 테이블에 잘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은 매우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로 둘러싸여 정말 멋지고 값진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Liz



자원봉사 자서전: MEG VILLANUEVA

[이번 달을 시작으로 종종 연재기사를 새로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자서전은 IAVE 회원들이 그들의 자원봉사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Meg 으로 잘 알려진 Meghann Aurea Villanueva 를 시작으로 연재 기사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그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뒤, 자신이 Stairway Foundation 에서 경험했던 자원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올해 말, 그녀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IAVE 청소년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녀와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세요. maurea8@yahoo.com.]

Meg 은 누구?

저 Meghann Aurea Villanueva (Meg)는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워크샵에서 발표하기 위해 제 17 차 세계대회에 참석하러 서울에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IAVE 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대학환경을 통해 본 청소년 자원봉사가 필리핀에 주는 영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때는 17 살이었고, Leo Wong 과 Carlos Roca Parada 의 청소년 서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를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논문으로는 기독교와 무슬림 청소년들이 이해하는 평화라는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썼습니다.

지금은 국제 NGO 단체인 (주)PeaceTech 의 프로그램의 매니저이자 국가 책임자로 있으며, Peace Tech 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사회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화상회의 등의 기술력으로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연결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PeaceTech 에 오기 전에는 평화교육, 영어, 국제적 이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저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세계적 영향”이 보고된 “파나마 IAVE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에서 저는 대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일을 하였고, 예수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해오셨기에, 저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활동에도 참여했고, UN이나 아세안 캠페인과 같은 국제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Stairway 재단

최근, 저는 Stairway 재단에서 평화캠프 자원봉사를 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5일을 보냈습니다.

30명의 각기 다른 인생 이야기보따리를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며, 먹고, 놀고, 새로운 것을 배웠고, 그곳을 떠날 땐 아쉬움에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함께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0명의 참가자는 마닐라국제학교에서 왔고, 또 10명은 Tugdaan 고등학교에서 온 망얀족(Mangyans)이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Stairway 재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1990년 미국인 Monica Ray 와 덴마크인 Lars Jorgensen 에 의해 설립된 (주)Stairway 재단은 필리핀의 길거리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의 배움터입니다.

설립된 이래로 길거리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아이들이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아동 학대와 성적 착취를 상대로 크게 고군분투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SFI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함께 힘을 합하여 아동의 성적 학대와 착취를 상대로 싸우게 되었으며 지지세력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준비하여 그 끝을 향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Stairway에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도 학대를 당하거나 역기능 가족 혹은 소년원에서 왔습니다. 마약 중독이었던거나 길거리에서 살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기회로 재단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주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헤나 타투, 벡타이 염색, 티셔츠 프린팅, 드림캐쳐¹, 우정팔찌 등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며,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게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구걸, 절도, 도박 등에서 멀어져 인생의 향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매주 설거지나 청소 등의 일을 맡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배움이 좀 있는 수준과, 다른 학교에서처럼 교육받는 수준으로 나뉩니다. 아이들은 교실도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습실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연례적으로 열리는 캠프나 야외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총체적인 발달을 위하여 균형이 잘 잡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하면서는 팀 구성 활동뿐만 아니라 평화와 갈등에 대한 모임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 Yellow Team 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개의 국제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에는 원주민 소녀 두 명과 Stairway 재단 남자아이 두 명,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온 남자아이가 있었고, 우리는 모두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그룹과제도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각 개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은, 저희 팀원이 저녁상을 준비할 때, 모든 팀원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저를 깨워야만 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저희 팀원들이 저를 찾으러 올 정도로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를 느끼고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¹ 인디언 문화에서 주로 침대 근처에 걸어놓아 나쁜 꿈을 쫓아준다는 의미의 장식물

매일 아침 6 시에 우리는 해변가에 큰 원을 만들어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합니다. 이 아침운동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은 다음 옆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해요” 로 말을 끝맺어 결국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원 안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해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Stairway 아이들과 함께 섞여 활동하면서 저는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긴장을 풀게 하고, 마음의 치유에도 효과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크리스티안이라는 한 남자아이는 저에게 “*ang sarap pala ng pakiramdam ng may nagmamahal sayo*”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겪어 오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음이 많아졌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굳건해지고 보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보면 아주 대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Stairway 에서 보냈던 아름다운 날들로 저는 과거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제가 10 살 때 제 아버지께서 한 저명한 대학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실 때 저를 길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일주일간의 긴 캠프에 데려가셨는데 저는 그때 자원봉사자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때 저는 처음으로 학교를 가지 않거나 끼니를 구걸을 하는 아이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날에는 아버지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하며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벌써 친구가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 아이들이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로서 전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그때의 아주 귀중했던 경험을 다시 떠올리곤 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왜 양로원에 있는지 길거리의 아이들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왜 그들이 요양시설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사회의 불평등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록,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이해와 배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Stairway 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te(s)*’ 와 ‘*kuya(s)*’(big brothers and big sisters) 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선생님이면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어쩌면 저렇게 아이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에겐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재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Stairway 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라는 여행을 계속 이어준 분들 덕분입니다. 캠프를 통해 저는 많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기본적인 인간 관계를 넘어서는 불평등이 있는 그 곳에, 문화와 신념, 성장배경을 모두 떠나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차이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원봉사 자서전”에 기고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E-IAVE 의 다음 호에 실릴 기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kenn@civilsocietyconsulting.com 로 보내주세요.

사랑으로 쓰촨을 도운 홍콩 자원봉사자들

[이 기사는 홍콩 AVS의 CEO이며 홍콩 IAVE 대표인 Flora Chung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에 리히터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극심한 재해로 인해 7만 여명이 사망하고, 1만 8천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수 천명이 부상을 당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홍콩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대규모 구호활동을 시작하여 압도적인 속도로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홍콩 내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협회(AVS)가 홍콩의 한 방송사(RTHK)와 함께 쓰촨 재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쓰촨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기증 캠페인'은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적어도 100가지의 활동을 약속하여 앞으로 5년간 어떤 류의 활동이라도 쓰촨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 대표, 연예인, 의회의원, 지역사회 지도자, 국제 및 지역 자선단체와 구호 단체의 서약에 앞장을 섭니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약 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요 몇 주 사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의료, 교육, 상담,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자원봉사 인적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http://www.quakevolunteer.hk>)은 서명한 자원 봉사자들의 정보를 집중관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흥미와 활동 참여를 위해 재난 구조와 재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 요청을 하도록 비영리조직에 요청하였습니다. 재난봉사에 관한 자원봉사 가이드는 현재 진행 중이며, 교육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합니다. 이번 7월부터 매달 홍콩방송(RTHK)에서 생방송으로 쓰촨 재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이 보도될 것입니다.

최근 자원봉사자 그룹들이 어린 학생들을 돌봐주기 위해 홍콩에서부터 쓰촨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고 따뜻한 마음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속에 온정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 돌봄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지진 피해지역으로 파견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희생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것이며, 교육, 집수리, 건강, 상담 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열심히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IAVE G-CVC 로부터의 소식

디즈니 명예 자원봉사자들

디즈니의 전세계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특히 VoluntEARS 프로그램은 2008 직장 내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하나로, 6월초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자원봉사 전국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IAVE 기업자원봉사협회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디즈니는 그들의 VoluntEARS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로써 또 하나의 멋진 일이 추가되었으며, Points of Light Institute and Hands On Network 와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로부터 명예로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실제 봉사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을 포함하여 임직원 전체의 자원봉사 노력을 기리기 위해 수여되었습니다.

디즈니의 기업자원봉사 프로그램인 VoluntEARS는 월트 디즈니 회장이 수시로 LA 지역의 아동병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식으로 1930년대부터 시작했던 디즈니사의 25년에 걸친 지역사회 환원의 노력이 가져온 오늘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기업자원봉사활동 아주 오래해 온 회사이며, IAVE의 열정적인 지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는 미키마우스와 다른 디즈니 캐릭터들은 전 세계의 많은 가족과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즈니의 자선사업과 자원봉사활동 노력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모토는 “전 세계적인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디즈니 VoluntEARS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삶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만 42개국에서 디즈니 VoluntEARS에 466,000시간 이상의 봉사를 했는데, 운동장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가족을 위한 집을 짓고, 재난 지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500백만 시간 이상 세계적으로 사회공헌을 했습니다. 디즈니 VoluntEARS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 “마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원 빌기는 디즈니 전통의 하나이며, 디즈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인자입니다. 매년 7천명 이상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디즈니와 관련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디즈니공원에 방문하거나, 뮤지컬 고등학교의 배우들을 만나러 오거나,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거나, 일일 캐릭터가 되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Starlight Starbright와 함께 “디즈니의 컴퓨터 친구”라는 활동을 통해,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를 기증하여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오락거리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즈니가 전 세계 사회에 공헌한 것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의 테마에 따라,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당신에게 귀를 기울입니다(EARS to You)”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열정과 시간을 할애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적게는 10시간의 자원봉사로, 그 직원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100달러가 기부됩니다. 올해는 디즈니 VoluntEARS의 25주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직원들은 2천5백 달러가 수여됩니다. 2007년에는 EARS to You를 통해 1334건에 해당하는 957,450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디즈니는 그들의 **미키 마우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갑을 엽니다!

디즈니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 자원봉사의 날, 디즈니 VoluntEARS 세계 축제, 팀별 VoluntEARS의 날, 자원봉사를 위한 걷기대회, 지역단체와 함께한 Holiday Adopt-a-Family(1일 부모되기) 또는 Adopt-a-Senior(1일 자식 되기)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또한 Boys & Girls Clubs, Toys for Tots, Global Youth Service Day와 그 밖의 많은 단체와 함께합니다.

디즈니 VoluntEARS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와 개인들이 도움을 받고, 직원들(디즈니의 세계에서는 배우라 불리는 이들)은 가치 있는 기술을 얻고 많은 방면으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서들은 팀별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더 나은 팀워크를 얻을 수 있고, 디즈니는 더 좋은 평판을 얻고 더 건강한 지역사회에 더 행복해진 직원들로 가득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IAVE는 G-CVC의 가장 열렬한 지원자인 디즈니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즈니 자회사와 ABC 방송, ESPN 방송, 그리고 배우 제프 호프먼, 테리 위크, 카렌 카와나미, 타미 맥페건에게 특별히 더욱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미키마우스여 영원하라!

TUBE에 뜬 IAVE 회원들

매년 Global Youth Service Day의 후원단체인 Youth Service America 소장이자 경영책임자인 Steve Culberts는 유튜브에 YSA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 각국의 GYSD 동영상을 올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서명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홈페이지(www.youtube.com/youthservice)에서 찾아보세요!

싱가포르 전국자원봉사센터 “Giving Place” 공식 개소 축하

[이 기사는 IAVE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전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Volunteer and Philanthropy Centre)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NVPC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The Giving Place(아낌없이 주는 곳)’는 2008년 7월 7일 리셴룽 국무총리가 귀빈으로 함께한 공식석상에서 기쁨의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성공적인 조합인 The Giving Place 는 싱가포르 내에서 나눔의 상징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Far East Organization 은 NVPC 에게 그 공간을 선뜻 제공했으며, 후원단체와 후원자들은 시간을 내어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이 지역사회 기반의 나눔의 중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Giving Place의 훌륭한 시설에는 160명 관중을 수용 가능한 대강당과 1,700ft² 넓이의 갤러리가 있는데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행사나 다른 용도로도 개방이 됩니다.

저녁에는 싱가포르의 나눔의 현장에 또 하나의 축전이 있었습니다. Community Foundation of Singapore Donor Agreement Signing Ceremony(싱가포르 기부자 협정 계약식의 커뮤니티 재단)였습니다. 식에 참석한 주춧돌의 기부자들은 Community Foundation(커뮤니티 재단)에 각 1백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7억 7천 만원)가 넘는 액수를 기부하였습니다. 위원회 건립기금으로는 1천3백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00억)가 모금되었으며 기타 5백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38억 7천만원)가 곧 모일 예정입니다.

연설 원고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www.nvpc.org.sg)에 접속하세요!



이달의 일정

국가 청소년 서비스(NYS)의 세계 회의

NYS 가 주최하는 제 8 회 IANYS 가 11 월 19 일부터 22 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는 *Fondation des Etats-Unis* 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ICP(시민참여혁신연대, 의역) IANYS 사무국이 *Unis-Cité* 로부터의 IANYS 국제위원회 회원들과 자원봉사단체협회(AVSO)가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회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 (<http://www.acteva.com/booking.cfm?bevaid=160766>)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 청소년 서비스와 청소년 발전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 국회의원, 연구원, 청소년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세계 회의의 목표는 전문가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4 일 동안의 과정을 개최하고 선택적으로 정책상의 사전회의 세션을 포함하게 됩니다. 사전회의에서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본회의, 원탁 토론, 주제별 워크숍 및 서비스 구성 요소, 답사가 포함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현재의 국가 청소년 서비스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며, 팬잡은 사례와 교훈에 대해 의논하고, 국가 청소년 서비스 정책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http://www.icicp.org/ianys>)에 방문하시어 예비 회의 의제 등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시아 유럽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류

[이 연설은 이달의 자원봉사 자서전을 써주신 Meg Villanueva 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올 2008 년, 아시아-유럽 재단이 Coordinating Committee for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 (CCIVS)와 협력하여 아시아-유럽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류(AEYVE)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방콕과 그 외 ASEM 소속의 많은 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며,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www.asef.org)에서 확인하세요!

2001 년 설립된 아시아-유럽 청소년 자원봉사 교류(AEYVE)는 서로 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협력,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의 자원봉사 서비스기관 간의 교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정보를 교환하여 공통의 질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보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신 IAVE 국제자원정보센터의 Anthony Carlisle 께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할 때 좋은 실전 가이드

이 새로운 발표는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실제적인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러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단체
- 사회과학 전공 대학생들
- 지역사회 및 청소년 근로자들
- 자원봉사단체, 지역사회 기관 및 기타 법정단체들

32쪽으로 이루어진 가이드 중 ‘성공으로 가는 5가지 단계’: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계획 짜기: 적절한 관리 및 지원, 자원 봉사자의 역할, 필요한 자원
- 기회의 범위 넓히기: 사회적 통합의 유도, 장단기적 관점에서의 혜택, 필요한 자원
- 모집, 면접, 선발: 평가 기준, 전과기록 조회, 면접 상담, 활동, 신원조회 및 면접 과정;
- 교육 및 관리 감독: 초보자 연수, 사내 교육, 인적 관리, 수습 기간, 자원봉사센터 교육;
- 평가: 만족도 및 성과, 지속적인 평가, 의견 수렴, 학습 도구

책자 ‘Something Out, Something In’는 DVD와 함께 구매가 가능하며, 가격은 15파운드(한화 약 29,000원) 입니다. 주문하실 분은 carol@volunteerangus.org.uk로 연락 바랍니다.

* 7-8 월 호는 최재희 님께서 자원봉사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